CafeBar 프로젝트 보고서

-박정민의 샤샤샤 (박정민, 고세진, 심수정)

1. 프로젝트 소개

-카페에 가면 생소한 메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학교에 있는 카페에만 가도 카페라떼, 카페오레, 프라페 등등 이름만 봐서는 당최 어떤 메뉴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는 칵테일 바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죠. 일일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하여 알아보기에는 정제된를 찾기가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터넷을 뒤져서 각각 메뉴들에 대해 찾아보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커피와 칵테일, 그리고 소주를 섞어 만들 수 있는 소주칵테일로 카테고리를 나눴고, 카테고리마다 메뉴들의 사진과 이름을 리스트화 시킨 후, 클릭하면 관련 정보들이 나오는 앱입니다.

2.구현에 어려움을 겪은 기능과 느낀점

- 카테고리 별로 여러 메뉴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사진 갤러리처럼 바둑판식으로 재배열하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했으나 난이도가 높아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 사용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진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리스트들에 여러 사진을 추가하려고 하자 out of memory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사진의 용량이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지파일의 형식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3.고민했던 것

-앱을 제작하는 와중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앱을 이용하면 궁금한 것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직접 먹어보는 것만큼 와닿을 수는 없기에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휴대폰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리스트 화면에서 일정 회수이상 휴대폰을 흔들면 랜덤으로 한가지 메뉴의 디테일 액티비티가 뜨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